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이며 외교부장인 허담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로돈긴 린친동지가 1974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손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돈긴 린친동지와 그 일행을 접견하시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이 기회에 로돈긴 린친 외교부장은 **김일성**주석동지께 보내는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 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유모좌긴 쩨덴발동지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과 그 일행은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평양시의 공장, 교육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형제적조선인민의 로동과 생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성과를 보았다.

이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인 로돈긴 린친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이며 외교부장인 허담동지 사이에 친선적이며 호상리해의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몽골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위업에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이 관계를 앞으로도 몽골인민과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게, 평화와 사회주의위업과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을 확언하였다.

조선측은 얼마전에 몽골인민공화국 선포 영도을 맞이한 형제적몽골인민이 몽골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축하하고 제5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조선측은 몽골인민공화국의 대외관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의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다.

조선측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제생활에서와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평등과 독립, 자주권의 존중, 내정불간섭 및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몽골측은 이에 대하여 깊

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몽골측은 형제적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헌신적 로동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몽골측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과 특히 197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몽골측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이 조선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간주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즉시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측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시종일관 지지하여 주고있으며 이번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도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적극 활동하여 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쌍방은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평화애호적 진보적력량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굳은 결의를 확인하였다.

쌍방은 월남에 관한 파리협정체결후 그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월남민주공화국 정부와 남부월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벌리고있는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령토완정을 위한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민족적화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중근동에서의 공고하고 공정한 평화가 강점된 아랍령토로부터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완전히 철거시키고 팔레스티나아랍인민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보장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표명하였다.

쌍방은 칠레의 진보적민주주의세력에 대한 군사도당의 테로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칠레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견결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머무르는동안 자기들을 따뜻이 환대하여 준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였다.

쌍방은 이번 몽골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과 방문기간에 진행된 회담이 몽골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974년 12월 24일

평 양